

■ 기아차 '명품 살충사' 지역경제 이끈다

■ 디자인 혁명 대명사 '쏘울'

‘디자인 기아’ 명성 세계에 알렸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은 '디자인 기아'의 상징이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과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우수디자인상 대통령상' 등 각종 권위 있는 상을 휩쓸었다.

특특 튀는 디자인 덕에 인기도 높다. 특히 개성 넘치는 젊은 층과 대인 홍보가 많은 관공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어느덧 쏘울은 언론의 찬사 속에 한국 자동차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떠올랐다.

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최고 안전한 차량', 미 유력 자동차전문 웹사이트 클리블루부의 '5대 최상의 선택 차종', 유로 NCAP 충돌 테스트 '별5' 획득, 미 텍사스 자동차기자협회 '2009 최고 가치상', 국토해양부 '올해의 안전한 차', 마더프루프닷컴 '2010 최고 가치상', 브라질 유력 자동차전문지 카로의 '2010 최고의 차' 등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국산 첫 박스형 SUV = 쏘울은 경충한 키로 보면 SUV(스포츠킴벌리터차량)와 비슷하고, 타보면 승용차와 같은 차량이다. 그래서 S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여러 차량을 조합한 형태의 차량)다.

쏘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독특한 외관 디자인과 첨단 신기술·신사양이 더해져 혁신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며,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쏘울은 광주공장에서 전량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히 광주1공장은 '쏘울' 생산을 위해 새로 설립한 전용공장이다. 광주1공장은 자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차 쏘울이 지난 5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으로도 출시됐다. <기아차 제공>

특특 튀는 박스형 외관 젊은층에 각광을 들어 10만대 수출...세계 찬사 쏟아져

동화·친환경·작업자 중심의 세가지 테마를 적용해 쏘울의 품질을 높이고,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 철학에 부합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광주2공장에서도 주력인 스포티지 R과 쏘울을 병행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2008년 9월 출시된 쏘울은 광주공장에서만 올해 9월까지 2년간 총 25만대가 생산됐다. 최근 50만대 재편 사업이 성공해 내년부터는 1공장과 2공장을 합쳐 단일차종으로는 광주공장 사상 최대 규모인 연 20만대 생산이 가능해졌다.

판매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1~9월까지 쏘울은 내수 1만6000여대, 수출 10만여대 팔렸다. 지난해 2년동안 판매된 10만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디자인 기아'의 힘 = '쏘울'의 인기 비결은 무얼까. 바로 특특 튀는 디자인과 외관스타일이다. 외형은 둥근 듯하면서도 각이 쪼다. 또 상당히 날렵하게 빠졌다. 세계 3대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순화(Simplicity of the Straight Line)'가 잘 배어있다.

광주여대 이난정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뽐내며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교수는 "쏘울을 통해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기회를 만든 기아차가 앞으로 대담하게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도입한 디자인을 내보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특 튀는 디자인의 쏘울은 장난감으로도 나왔다. 정교하게 제작한 미니카와 변신 로봇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미니 전동차가 출시돼 미래 고객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쉽고 역동적인 기아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2011년형 쏘울, 뭐가 달라졌을까 = 더욱 실용적이고 안전해졌다.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풀오에 어전을 적용하고 전자식 톱미러와 자동요금결제시스템, 후방디스플레이 톱미러 기능이 통합된 멀티통합 톱미러를 장착했다.

시속 55km 이상 속도에서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급제동 상황 발생 시 제동등을 점멸해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을 전 모델에 도입했다. 주로 준대형 이상의 고급차에 적용되는 전방 주차 보조시스템도 달았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1311만~1953만원, 2.0 모델 1870만~248만원, 디젤 1.6 모델 1547만~2222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근로시간 전국 평균 못미쳐

광주 실질월급여액 182만4천원...작년보다 감소

광주와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올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 근로시간이 광주 178.9시간, 전남 181.8시간으로 전국 평균 187.6시간보다 적었다.

가장 근로시간이 긴 곳은 충남(200.0)이었고, 경북(197.5), 울산(194.9),

대구(193.6) 등 10개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었다.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감률은 울산, 전북, 경기 등 대부분 지역이 증가했으며, 광주와 전남은 각각 3.8%, 0.3%로 소폭 늘었다.

월급여액은 광주가 214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9%가 늘었으나, 전국 순위는 한단계 떨어진 11위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242만7000원으로 16개

시도 중 네번째로 급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월급여액은 전남이 205만7000원으로 서울, 울산, 경기도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18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했으며, 제주, 부산, 전북, 강원 등과 함께 전국 기준에 못미쳤다.

전국 평균 월급여액은 241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4.7%)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울산, 경기도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비자 체감경기 ↓ 물가 불안 ↑

기대인플레이션을 3.4% 1년만에 최고치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8로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 9월 109에 이어 3개월째 하락했다.

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응답자가 많고 100 아래이면 그 반대의 뜻이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9월 98에서 10월 92로, 향후 경기전망 CSI는 108에서 104로 낮아졌다. 생활형편 전망 CSI는 2포인트 떨어진 99로 작년 4월(95)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를 기록했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41로 9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4%로 작년 10월(3.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은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외제차 보험료 인상 검토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낮춰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은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0월에 찾아온 '기습한파' 겨울상품 판매열기 후끈

광주·전남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가을 한파'가 몰아치면서 유통업체에서 겨울상품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오전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26일부터는 때 이른 기습한파가 찾아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겨울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마트에서는 지난 22~25일

까지 히터,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더 잘 팔렸다. 또 코트, 점퍼 등 겨울의류 매출도 37%나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전기매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0% 가량 많이 팔렸으며 전기히터, 온풍기 등도 18%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내복 매출도 약 25% 증가했으며 한겨울에 잘 팔리는 모자,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은 찾는 고객들도 크게 증가했다.

디앤샵, 옥션 등 온라인에서도 겨울상품 판매가 늘어나기 말한가지다. 디앤샵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1인용 히터 매출이 전주보다 6.5배나 잘 팔렸으며 이불·담요도 10월 들어 24일까지 전년대비 매출이 290%나 급증했다.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 온풍기, 히터 등 난방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이상 늘어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통 10월 중순이 넘어야 난방용품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일교차가 심하고 평균기온도 낮아 난방용품을 찾는 수요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한銀, 저소득자·영세중소 대출금리 감면

신한은행은 27일 저소득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27일 이후 신규

되거나 연장되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의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내린달까지 감면해준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통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

로 차주별 대출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원한도는 모두 1000억원이며 대출금리 인하 기간은 3개월이지만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가맹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가미아식' (Gamiashik) restaurant. It lists various franchise types like '전두부 장점' (Tofu Specialty) and '식이섬유 전두부' (Fiber-rich Tofu), along with their respective investment amounts and benefit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Chonnam Head Office.

Advertisement for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호텔식 OPEN' (Africa Indoor Screen Golf Practice Field Hotel-style OPEN).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golfer on a screen and lists amenities like '전기계 골프존 / 대형룸 6실' (Electric Golf Zone / Large Room 6 Rooms) and '호텔식' (Hotel-style). It includes a phone number for reservations: 062-671-8900.